

대학가 소식



지난 5일 삼육대에서 스텝업 캠프가 진행되고 있다.

/삼육대학교

삼육대 개별 맞춤형 학습코칭 '스텝업' 성과

'학사경고' 학생, 1년 만에 수석으로

학습부진 원인 분석, 전략개발 도움

삼육대학교가 성적 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학사경고를 받았던 학생이 한 학기 만에 '올 A'를 받아 학과수석을 차지하는 등 우수성과가 나타나 대학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6일 삼육대에 따르면, 이 학교 교육혁신단이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스텝업(Step-Up)' 프로그램이 학습부진 학생들의 제도약의 발판이 되고 있다.

스텝업은 개별맞춤형 학습코칭을 통해 학사경고 및 학습부진 학생의 성적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성적이 우수한 선배(멘토)가 학습이 부진한 후배(멘티)를 관리하는 1대 1 그룹 활동 방식으로 운영

한다. 이들은 먼저 방학 중 열리는 '스텝업 캠프'에 함께 참여한다. 캠프는 학습역량 진단을 통해 학습유형을 확인하고, 학습이 부진한 원인을 분석해 자신에게 맞는 학습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캠프는 '사후멘토링'으로 이어진다. 멘토는 학기 중 멘티의 학습지도, 출결, 과제물 제출 등을 관리하면서 성적향상을 돕는다.

이정훈(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부 3학년) 학생은 입학 후 내내 낮은 성적을 유지하다가 군 입대 직전 평균평점 1.38을 기록하면서 학사경고까지 받았다. 전역 후 스텝업의 문을 두드린 그는 방학 중 캠프와 사후멘토링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한 학기 만에 만점에 가까운 4.4점(3.02점 ↑)으로 성적이 수직상승, 학과 수석을 차지했다.

/한용수 기자

건국대, 수의방역대학원 신설... "전문인력 양성"

석사급 신입생 1명당 500만원 지원



건국대학교 동물병원

/건국대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은 최근 농림식품축산식품부의 '2020년 농식품기술융합 창의인재양성사업(동물감염병분야)'에 선정돼 동물 감염병 방역 전문가 양성을 위해 특수대학원인 '수의방역대학원'을 설립한다고 6일 밝혔다.

건국대 수의과대학은 충북대 수의대, 전북대 수의대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농식품기술융합 창의인재양성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앞으로 전국 수준의 재난형 동물 감염병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

이번 사업은 국가의 동물 감염병 방역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방역 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 인력들을 전문화하고자 계획됐다. 국내 수의과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통의 커리큘럼을 갖는 특수대학원을 설립하여 방역 이론 및 실습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80억원의 국비 예산이 지원되며, 지자체와 대학의 부담금을 더해 총 106억원 규모의 교육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동물 감염병 방역 전문가를 양성할 특수대학원인 수의방역대학원을 수의과대학에 설립할 계획이다. 올해 개설되는 특수대학원에는 석사급 신입생 1명당 500만원의 등록금이 지원된다.

/한용수 기자

또 교육자·지도자, 서울사이버대로 모인다

'국제협력교육자 역량강화사업' 선정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글로벌개발협력전공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공모한 다국가 연수사업인 '아시아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협력교육자 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시아 국가의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평화감수성과 세계시민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하고, 중장기적

으로 한-아시아 평화와 세계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것이다.

특히 대동지역에서 추진계획 중인 통화적 평화마을 조성계획과 연계할 경우, 이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수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아시아권역의 교육부 관료와 초·중·고 수석교원, 시민사회 단체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석·박사 1.9만명에 장학금 7년간 2.8조 지원 '두뇌강국'

교육부·한국연구재단 '4단계 두뇌한국21' 계획

연간 1만9000명 대상 4080억 기초·핵심분야 학문역량 제고 4월 24일까지 사업신청서 접수

대학석박사과정생 등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위한 정부 사업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 연간 1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4080억 원, 7년간 2조856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4단계 두뇌한국21(BK21)사업 기본계획'을 6일 확정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사업 기본계획 시안 발표 후, 대학 현장 등의 의견 수렴과 기획자문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BK21 사업은 대학 학문후속세대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도록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석박사급 인력양성사업이다. 1단계(1999~2005년), 2단계(2006~2012년), 3단계(2013년9월~2020년8월)를 거쳐 이번 4단계가 올해 9월부터 7년간 추진된다.

사업 예산은 연간 4080억 원으로 전 단계 사업보다 연간 1380억원 증액된 규모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7년간 연간 1만9000명의 석박사급 대학원생이 지원받는다.

사업비는 교육연구단에 지원하는 △미래인재 양성사업 △혁신인재양성사업과 대학 본부에 지원하는 △대학원 혁신지원비로 구성된다.

미래인재 양성사업은 과학기술, 인문사회 등 기초·핵심 학문분야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것이다. 194개 내외 교육연구단, 174개 내외 교육연구팀을 선정해 지원하고, 연간 2338억원 규모로 1만2600명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혁신인재 양성사업은 8대 핵심선도 산업이나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등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 분야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사회문제 해결을 선도할 융·복합형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쓰인다. 207개 내외 교육연구단을 선정해 지원하며 연간 1187억원 규모로 6400명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석박사과정생 지원 인원이 전 단계보다 연간 2000명 확대된다. 또 대학원생 연구장학금과 신진연구인력 지원금이 인상된다.

석사과정은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

로, 박사과정은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박사수료는 월 100만원, 신진연구인력의 경우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학문 분야 간 융합 촉진과 대학원 본부가 제도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지원금이다. 일정 수 이상 교육연구단이 선정된 대학에 연간 529억원을 교육연구단 수, 참여 교수 수, 지원 대학원생 수 등을 고려해 배분되고, 대학체제개편, 대학원 교육개선 등 대학원생 복지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대학을 별도로 선정하고, 전 단계 사업의 지원 수준을 유지해 지역 단위 우수 인재 양성과 학문의 균형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3월초 이번 사업 예비신청을 거쳐 4월24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 신청요건 검토에 들어간다. 선정평가는 5월 중순~7월 초까지 약 6주간 진행되고, 7월 중 선정평가 예비 결과 발표, 이의 신청과 현장 점검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 결과는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부산대 '2020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선정

"예산 1억 1500만원 확보... 전문 교육과정 운영"

부산 대학생 대상 수강생 모집 우수학생 해외기관서 연수 진행



부산대학교 전경

/부산대

부산대학교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2020년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운영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 현장이 필요로 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혁신거점으로서 대학 사회적경제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부산대를 포함해 전국 4개 대학이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 전문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연계 사업이 추진된다. 학교당 1억1500만원, 총 4억67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부산대는 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부산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총 30명의 수강생을 모집해 3월부터 1년 과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수 학생은 일본 해외기관 연수도 받을 수 있다.

향후 사회적기업가 정신 이해 등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을 다른 기업과 차별화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경제 혁신적 사업 모델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교육과정은 기초과정, 응용과정, 현장학습, 인턴십 등 이론과 현장실무 강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전 공공기관 인턴십과 현장실습 참여 확대, 지역 주민참여 공개강의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맞춤형 담당 멘토링제도를 시행해 교육 프로세스와 수강생 모니터링 하는 등 성과지표 달성 여부도 점검한다.

/한용수 기자

서울과기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MOU

"슈퍼컴퓨터 활용 공동연구... 인재 교육·지도 협력"

연구·학습 활동 경쟁력 강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슈퍼컴퓨터 활용 공동 연구를 위해 손잡는다. 양 기관은 6일 서울과기대 총장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연구데이

터 및 슈퍼컴퓨팅 인프라 등의 활용 및 확산을 통한 연구·학습 활동 경쟁력 강화 ▲계산과학 융합플랫폼 등 융·복합 인프라 지원을 통해 최신 과학기술 적 응력 제고 및 우수인재 양성 ▲멘토링, 학습활동 지원, 공동연구 등 학·연 연계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인재 교육 지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동훈 총장(오른쪽)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최희운 원장이 6일 서울과기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